

#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을 탐구한다

##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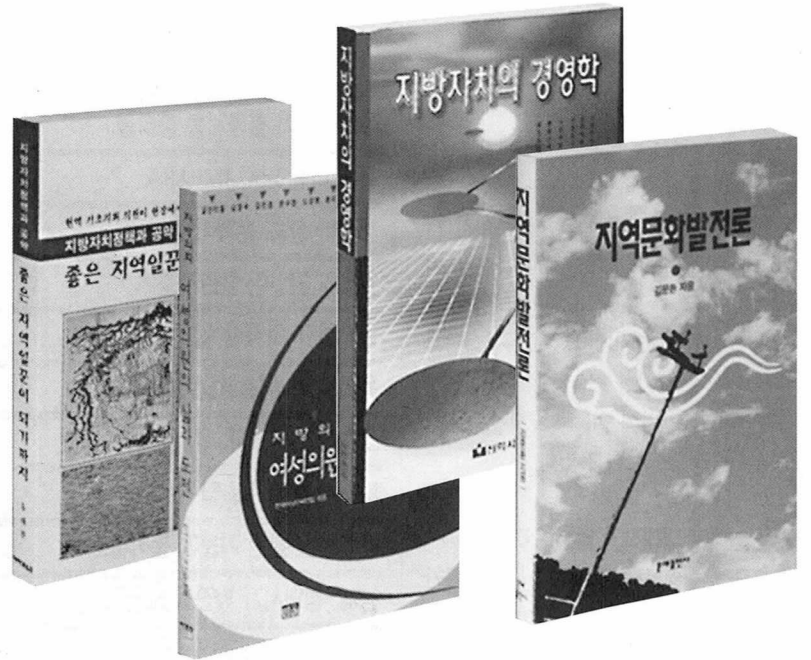
중앙부처가 주도한 경제 우선 정책이 30여년간 이어지면서 '지방'이나 '문화' 부문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지방은 추문(醜聞)으로 여겨질 정도이고, '문화는 금불이도 거품도 아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그간 '서자' 대접을 받아온 지방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행정의 문화화에 큰 비중

김문환 교수(서울대 미학,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의 《지역문화발전론》(문예출판사)은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의 상호관련성을 주제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지역문화와 시민운동으로서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3부로 이뤄졌는데 제1부에서는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을 한꺼번에 다룰 때 필요한 기본개념을 숙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화·국제화·정보화·경제의 소프트화·행정의 문화화·문화복지·사회교육 등의 개념을 언급했다.

이 중 '행정의 문화화'는 지역문화의 창조를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문화행정의 큰 축을 형성한다. 문화영역에 대한 '행정지원'이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해 자리·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조건을 정비해 주는 일이라면, '행정의 문화화'는 "문화의 관점에서부터 행정혁신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곧, 행정 전반에 문화성을 투입하고, 행정운영의 방법과 단계에서 내부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교수는 '행정의 문화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행정에서 지역성을 살린다 ▲지역형성에서 환경미를 창출한다 ▲행정을 시민감각으로 펼친다 ▲행정에 과학성을 도입한다 ▲지역형성에 적절한 기술을 안출해낸다.

제2부는 핀란드·독일·호주·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앞서 살펴본 기본개념을 심층적으로 고찰했고, 제3부에는 총론과 사례연구에 바탕을 둔 각론을 엮었다. 각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정책을 살핀 다음, 지방자치에 걸맞은 대안과 보완책을 모색했다.



김홍일 의원(새정치 국민회의)의 《세계를 향한 지방자치》(나남출판) 역시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이라는 화두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접근한 점이 특색이다. 그것은 '세방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세방화(Glocalization)'란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을 일컫는다. 정보화는 《지

역문화발전론》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을 묶어주는 개념의 하나다.

따라서, 제4장 <세방화시대의 정보화>는 이 책의 핵심이다. 여기서 컴퓨터·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정보화는 세방화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지역의 정보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와 행정서비스의 손쉬운 이용이 가능해

### 출판계 소식

## 문화부 '98 우수학술도서 지원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접수 ... 총 300여종 선정

문화관광부는 학술출판 진흥을 위한 '98 우수학술도서 선정 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도서는 97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발행되어 문화관광부에 납본한 학술도서(CD롬 등 전자출판물 포함).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도서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7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소정양식)와 신청도서 2부, 도서내용 개요(500자 이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한 도서는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문학·역사 등 9개분야로 나뉘어 총 300종 내외가 선정되는데, 선정

내용은 8월 6일(목요일) 동아일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선정된 도서는 발행 출판사에 제작비 일부(종당 400만원 내)를 지원하며, 일정 부수를 구입(종당 115만원 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신청한 도서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에 신청할 수 없다. (735-2701~3)

### 파주에 대형 출판물류센터 건립

도서종합유통업체인 날개와 김영사·사계절·고려문화사·서지원·홍익미디어·폴빛출판사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파주출판물류주식회사(대표 조노현)가 파주시 교하면 다음



지난 6월 16일 파주시 교하면 다음리에서 가졌던 기공식.

리에 5500평 규모의 출판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지원금 50억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군의 협의를 얻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총 70억원이 투입될 물류센터는 출판물 전문보관시스템을 도입한 현대식 시설로 건설되며, 창고형 전시판매장·출판박물관과

휴식공간도 마련한다. 물류센터측은 "앞으로 사내에 출판사와 서점이 공유하는 중앙정보제공센터를 만들어 한국형 출판유통구조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1월에 완공될 예정인 물류센터는 향후 조성될 출판단

지·인쇄단지과 인접하여 역할이 기대된다.

### '98 범우출판 독후감 공모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제13회 독후감 공모행사를 연다. 중·고등학생부와 대학·일반부 2개 부문. 출판사가 지정한 대상도서 중 한권에 대한 독후감을 8월31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717-2121)

# ‘솔보’의 외로움

‘솔보’는 늘 외롭습니다.

그러나 편집실 열 명 식구 중 녀석의 외로움을 덜어 줄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욱 열심히, 더욱 정성들여 원고를 쓰고, 교정을 보고, 디자인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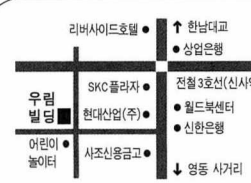
- 막내 재은이가 가끔 눈치껏 놀아 주긴 합니다.



‘솔보’는 삼연편집실의 지킴이개 이름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학술 서적을 비롯하여 사전류, 아동도서, 잡지, 사보, 학회지, 자서전, 회고록, 개인문집에 이르기까지 각종 출판물의 편집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전산 조판, 필름 출력에 이르는 전공정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의 상호 관련성을 주제로 다룬 책들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대안과 보안책을 모색한다. 국내·외 사례까지 예시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논의가 주조를 이룬다. 지방문화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주목된다.

진다. 이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완화되고, 고품질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고루 제공받게 된다. 또한, 이 책에서 김의원은 세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검토하고, 지자체 정보화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본 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 정보화에 주목한 책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위한 정책론과 경영론에서도 문화영역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열린고양지역자치연구소 유재찬 소장의 《좋은 지역일꾼이 되기까지》(미래M&B)는 저자가 고양시의회 의정활동을 토대로 쓴 지방자치정책론. 이 책에서 문화정책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예술 시설·옥외생활공간·문화프로그램·문화의 거리 등 주민생활 밀접한 문화 관련요소를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다뤘다. 특히, 지역문화정책을 입안할 때 주의할 점은 곱셈이 불만하다. 문화지상주의와 문화를 경제발전의 도구로 보는 입장을 동시에 경계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부처의 문화정책자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자치의 경영학》(선학사)은 지역일꾼을 위한 행정 지침서. 이 책에 실린 <지방문화와 세계화> <지방화와 관광레저산업> <지방발전과 지역정보화> 등은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의 상호관련성을 다룬 글들이다. <지방발전과 지역정보화>는 제목대로 '정보화'에 주목했다. 이 글을 쓴 박철수 교수(수원대 경제학)는 '지역정보화'를 이렇게 정리

한다.

“지역단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내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여 지역 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 그리고 지역문화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

이들 책은 지방문화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국내·외 사례를 예시하며 생동감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가 주조를 이뤄 딱딱한 느낌이 든다. 반면 지역발전의 제언을 좀더 부드럽게 풀어쓴 책들도 보인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1996)는 신간은 아니지만 지방행정과 문화발전에 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의 2년에 걸친 일본 지방자치 현장답사기. “지역개발의 핵심은 ‘인간’이다.” 10곳의 지자체를 둘러보며 강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생애학습 조례’를 만들어 7만명의 시민에게 평생교육을 유도하는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의 경우가 인상적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해서인지 지방문화행정의 실제에 관한 국내 성과물은 찾기 힘들다. 여성의원들의 의정체험기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삶과 도전》(한울)에서도 문화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다리 하나 안 놓으면 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시장의 발언을 가정법 미러투로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다.

이에 비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엮은 《우리고장 문화유산》(개마서원)은 본격적인 성과물에 속한다. 개마서원의 윤혜경 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공보담당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물론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지 않았거나 지방자치 시행되지 않았으면 그런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작업을 통해 공무원과 출판인이 협력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와 문화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최성일>